

# 영광군, 전국 첫 '햇빛·바람 군민 기본소득' 하반기 시행

### 새해 첫 회의 열어 '군민 평생 연금 시대 실현' 방향 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성 등 박차

장세일 영광군수가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관련 회의의 주제로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에 나섰다.  
햇빛·바람 군민 기본소득은 '태양광·풍력발전 이익금'을 군민과 공유하고 기본소득 실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광군은 지난 2일 시무식을 마치고 곧바로 전국 최초의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이익공유 관련 군수 공약사업 추진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장 군수를 비롯한 군민 기본소득 기반 조성국 관련 부서장 간부·실무팀장 17명이 참

석해 '군민 평생 연금 시대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안정장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영광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에 풍부한 햇빛·바람·바다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군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영광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목표·재원 발굴, 영

광형 기본소득 지급 모델 확립'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 국공유지 활용사업·영농형 태양광 단지' 등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햇빛소득 추진이 논의됐다.  
또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시행·군민 조합 설립'을 통한 바람 소득 추진, '상생 지원금의 기본소득화' '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성' '상생 소득 추진' 등 4개 분야 과제 추진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 군수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장 군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특별한 노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전국 최초로 영광형 기본소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상호 협력해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장세일(가운데) 영광군수가 지난 2일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이익공유 군수 공약사업 추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2025년은 완도 방문의 해”...관광객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 천만 관광객 목표 다양한 프로그램

완도군이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삼아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다채로운 관광 정책을 펼친다.  
완도군은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와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국제·대규모 행사를 열어 세계 무대에 완도의 잠재력을 선보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를 '방문의 해'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 완도 365일, 힐링 온도 36.5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히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운영해 개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유료 관광지·체험,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대폭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가 20명 이상 유치였지만 10명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개별 관광객에게는 1팀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관내 업소 이용 쿠폰 또는 완도 특산물 소포장인 '완도청정마켓' 이용 포인트 지급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특별 여행 주간(4~5월, 9~10월)도 운영해 완도 대표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접목해 웰니스 투어 상품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 치유의 섬이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 건강한 먹거리 등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집라인.

## 목포시, 출생 기본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대상 1~18세까지 18년간 지원

목포시가 올해 1월부터 출생 기본수당을 신청받는다.  
출생 기본수당은 현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18세까지 18년간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전남도 10만원, 시 5만원. 총 15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아동으로 출생 및 보호자는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일이 1일에서 15일이면 해당 월의 25일부터 지급되고, 16일이 넘어가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부모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아

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출생 기본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22개 시·군 일괄) 2025년 1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돼, 2026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산 극복의 일환이 되길 바라며, 첫 시행인 만큼 홍보에 완벽히 해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군, 2025년 해양수산사업 23종 111억원 규모 사업자 모집

진도군이 해양수산사업 활성화를 어업경영 지원을 위한 '2025년 해양수산사업(23종, 111억원)'에 대해 8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어업인, 단체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사업자 선정 관련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수산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해 군민이 주인이자 살기좋은 지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암군민 10명 중 7명 "삶의 만족도 높다"

###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 ↑

영암군은 군민 10명 중 7명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밝혔다.  
영암군이 군민 삶의 질과 관련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조사한 '2024년 영암군 사회조사'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민 10명 중 7명인 69.4%가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주며 전년 대비 2.2%p 상승한 만족도를 보였다.  
'행복 빈도' 항목에서도 6점 이상을 준 군민은 63.8%에 달한다.  
기난한 집과 부자인 집 모두 소득이 늘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곳은 70.3%,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10.7%로 지난 조사 때 보다 각각 2.9%p, 4.6%p 증가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된다고 응답한 군민은 26.1%로 2022년 대비 5.0%p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1.009명으로 전년 0.95명 대비 증가했다.  
주민등록인구는 5만 2350명으로 전년보다 45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30~9월 11일 828개 표본가구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에게 삶의 만족도, 인구, 소득, 소비, 교육, 안전, 환경, 의료, 사회복지 등 46개 항목을 조사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군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률 84.8%

### 3년 연속 전남 군단위 지자체 1위

해남군이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에 84.8% 집행률을 달성해 3년 연속 도내 군단위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해남군은 재정집행 대상액 1조 2470억원 중 1조 571억원을 집행했다.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 목표액 대비 159억 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어려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매년 1조 2000억~1조 5000억원 규모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민선 7~8기를 거치며 본예산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25년 8973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철저한 재정운용 관리를 통해 집행률은 매년 향상돼 지난해 하반기에는 84.8%까지 높아졌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와 주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 제점을 해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도 달성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목포어울림도서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목포어울림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부터 2월까지 5주간 7개 프로그램을 개설, 주야간 및 설맞이 특별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다채롭게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가족공예(야간) 초등학생 및 가족 프로그램 ▲인물로 만나는 세계사 ▲송알송알 동시 놀이 ▲책 속 미술 나라 ▲동화랑 동극이랑 등으로 구성된다.  
설 연휴에는 ▲라탄 북주머니 만들기 ▲과일 오색살강정 만들기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10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준비한 겨울방학 및 설맞이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평생학습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희석 기자 kyl@kwangju.co.kr



땅끝 고티랜드.

## 해남군 땅끝마을~땅끝탑 무장애길 조성 완료

### 350m '땅끝 고티랜드' 4개월 공사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땅끝탑까지 계단이나 경사지 없이 누구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 조성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무장애 걷기길 '땅끝 고티랜드' 조성이 4개월 공사 끝에 최근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땅끝관광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땅끝마을까지 가는 일부 구간은 계단과 경사로로 조성돼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롭게 조성된 땅끝 고티랜드는 땅끝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출발해 땅끝마을까지 이르는 길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350여m 산책로를 보행이 편하게 정비하고 도중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와 포토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피커러를 설치했다.

특히 땅끝스카이라이프가 위치한 지점부터는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450m의 데크길이 땅끝마을까지 이어져 땅끝의 해양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다.  
고티랜드 모든 길에는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땅끝 관광지에 방문하거나 땅끝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의 장소를 만들 예정이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마을에는 북위 34도 17분 32초, 우리나라 땅끝지점에 땅끝마을이 조성돼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땅끝전망대와 세계 6대륙의 땅끝지점을 축소해 만든 세계의 땅끝공원, 땅끝바다로 뻗어나간 41m 길이의 스카이라이프 등 조성된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무장애 길을 계기로 땅끝관광지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